

【한남대 신윤표 총장】

경쟁력 있는 IT·BT분야 중점육성

한남대학교 신윤표(申允杓) 총장은 본지와의 E-mail 인터뷰에서 “우리 대학교는 앞으로 한 손에 선교, 한 손에는 IT·B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펼쳐게 될 것”이라며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에 맞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취업 후 재교육이 필요없도록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 E-mail 인터뷰 : 李光榮(전북대 초빙교수/본지 편집위원)

■ 먼저 총장님의 과학기술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는 농경, 산업사회를 거쳐서 고도의 정보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IT 분야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의 지식, 정보, 창의력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식과 정보의 핵심은 과학기술력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이는 지식, 정보시대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며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창의력과 모험심을 가진 훌륭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한남대학교의 설립 이념과 기본 운영방침은.

46년 전통 ... 진리·자유·봉사 창학이념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미국 선교사들의 땀방울로 세워진 우리 대학교는 진리·자유·봉사의 창학 이념 아래 지성과 덕성, 그리고 영성을 고루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교육하고 있으며, 이들이 졸업 후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일터에서나 일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을 배워 실천할 수 있는 용기, 정직과 성실로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대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 본교가 지향하는 이념입니다.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간 교육이, 생명력 있는 무형의 자원을 창출하는 밑거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남대학교의 21세기 비전,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요.

한 손에 선교, 다른 한 손에는 IT, BT를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과학기술인력 양성 비전은 BK21 사업을 통한 우수 정보통신인력 양성,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한 첨단 IT 기술 교육, 모든 학생들이 정보활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 특성화 교육 실시, 인성·정보·국제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전인교육 실시입니다. 산·학·연 협동을 위해 산학협동연구원을 통한 대덕연구단지·대덕밸리·관공서와의 내실있는 협력과 창업보육센터·기술이전센터 등을 통한 산학협력 증진입니다. 국제 과학기술 협력을 위해 필리핀 IT 대학원 개설 운영을 시작으로 동남아와 중국권 진출, 북한 김책대학에 IT 국제 공인자격취득과정을 개설, 남북한 협력사업을 추진해 갈 것입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한담하고 있는 신총장(가운데)

■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본인은 취임 이래 우리 대학교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해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해 일관된 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특성화 5대 추진방향으로 창학이념 제고, IT·BT사업 추진, 연구소 활성화, 지역 사회 연계 확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안정 속의 지속적인 행정 쇄신, 대학발전기금 사업 활성화 및 인적자원 운용을 통한 역점사업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의 여성 경찰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여성 경찰행정학과를 신설하였으며, 특허청을 비롯한 22개 기관과 산·학 협력협정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산·학 협력관계는 국내 어느 대학보다 많이 그리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약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재학생 취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백대 규모의 교회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독교문화연구원과 전국 기독교 모임인 홀리클럽(성서화 운동)과 연합해 기독교 문화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

다.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정보통신교육원을 설치하여 국제공인자격 취득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기술혁신센터(2000년), 기술이전센터(TTC: 2001년) 등을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지역기술연구센터(RRC), 과학연구센터(SRC), 청정기술개발사업, 해외창업보육센터 설립사업 등 국책 사업의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계획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과제에 대한 지표관리를 통하여 특성화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한남대학교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BK21 선정대학으로서 매년 정보통신·멀티미디어 공학부 신입생과 재학생 30%에게 장학금을 연 2백4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매년 학생 해외연수비

로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학부 신입생·재학생 30% 장학금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성교육과 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교양을 특성화하여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학제간 연계 전공, 최소전공학점 인정제, 수업평가제, 주·야간 전과 등 학생들을 위한 학사제도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밀착 지도하는 진로지도 교수제를 시행하고 있고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강좌 운영, 어학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연수제를 도입, 취업한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신기술 및 재교육도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공인 정보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오라클, 매크로 미디어,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등 국제공인자격 교육 및 시험인증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남대학교 이과대학 교수진이 '2001 창의적 연구 진흥사업 연구과제'로 「신 기능성 집광소재 연구」가 선

정되어 9년간 60여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할 만큼 우수 대학입니다.

■ **총장 재임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제가 본교 총장으로 취임한 후 수립한 '한남대학교 비전과 발전전략'은 그 교육개혁의 목표를 참된 인간교육, 실용적인 인간교육으로 정하였으며 '교육개혁의 3대 기본방안'의 개혁목표와 기본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10가지 영역에 걸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 전략과 함께 적정규모의 학생정원을 유지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IT·BT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학교육이 산업현장에 맞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취업 후 재교육이 따로 필요없을 만큼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현장 맞게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특히 정보기술(IT) 분야 교육 강화 및 지역기업과의 산학협력체제 강화, 벤처기업 창업여건을 장려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인도에 IT교육을 위해 1백여명의 학생들을 파견할 예정이고 영어·IT·선교분야의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 5백60만 한민족을 위한 민족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대학이 학부제 운영으로 해서 순수 학문분야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한남대학교의 경우는.**

학부제 도입은 사회적, 경제적 요구와 교육 수요자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학부제 시행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교의 경우 지금까지 학부제 시행기간을 거쳐 부분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학부제 개선 연구와 교육과정 개편 연구를 통하여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학에서는 학부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균형잡힌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 **대학의 과학교육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대학의 기초 학문 발전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소견이 있다면.**

대학들이 이론중심, 학위중심, 산업현장 기피중심 등 획일적인 교과과정 편성에서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의 개편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창의력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인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이 산업현장과 지역사회에 부응하는 교육,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능력 강화, 정보화에 부응하는 컴퓨터활용능력 강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 **최근들어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과학사이의 높은 담을 헤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 나아가서 인문과학과의 상호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견해는.**

모든 기술 발전의 밑거름은 기초과학에 있습니다. 최근 첨단 기술을 주도하는 응용과학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학, 물리학 등 기초학문이 튼튼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적 창의력, 미적 감각, 창조력을 가지려면 철학·역사·문학 등 인문과학 분야의 발전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 분야간 협력을 통하여 삼위일체형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데, 현재는 편중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학문은 많이들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가능하면 국가가 주도해서 분야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무한경쟁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 지식경제 강국이 될 수 있는 초석입니다. 과학기술계는 이를 위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R&D의 산학협동과 기술 수요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인력양성 체제를 강화하고 교육과 연구가 산업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구조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계에 속하는 기관들이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경주하고, 편향적이고 일사적인 발전이 아닌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이를 위해 기초과학 육성에도 힘쓰면서 보다 자부심을 갖고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⑩